



누적외상성질환 예방관리

■ 누적외상성질환(CTDs) 이란?

누적외상성질환(CTDs:Cumulative Trauma Disorders)은 반복작업으로 인한 장해로,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힘을 주는 작업이거나 또는 불편한 작업 자세에서 장시간 정적인 작업을 계속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작업이 누적되어,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■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요인

반복 작업

장시간 동안 동일한 반복작업을 할 경우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하므로 써 쉽게 피로가 발생한다.

작업 자세

작업장에서 작업공간의 부적절로 상지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인대, 근육, 신경부분에 역학적인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.

+

+

작업 환경

작업시 손바닥의 중심부에 진동으로 말미암아 미세한 손상이 유발되어 인대, 근육, 신경들이 쉽게 손상된다.

작업 시간

작업의 빈도와 주기를 위험한 수준 이상으로 작업을 행하였다면 쉽게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.

+

휴식 부족

인체의 근육을 최대로 사용한 경우 작업의 피로가 발생하여 회복될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이 계속된 작업이라면 반복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.



누적외상성질환 발생



누적외상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

- 전체적인 프로그램 - 작업 위치, 훈련, 관리, 광학
- 인체공학적 체크 - 작업 빈도, 작업 힘, 작업 거리, 작업 시간

■ 누적외상성 질환 예방대책

단순반복 장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서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온다.

손과 팔의 근력과 근지구력 증강운동은 심해지는 증상을 막아주고 장시간 작업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해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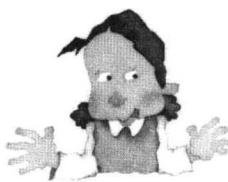
■ 편안한 작업환경

※ 작업은 가능한 허리(팔꿈치) 높이에서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- 작업대 높이를 작업자 신체크에 맞추면 어깨, 목 및 팔에 최소한 피로를 주면서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.
- 작업공구 및 부품 등은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도록 한다.
- 물건은 어깨보다 높거나 무릎보다 낮은 지점에 놓지 않도록 한다.
- 작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적당한 여유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

신체부위별 명칭과 누적외상성질환의 발생부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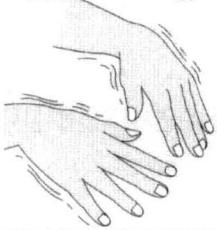
누적외상성질환 예방체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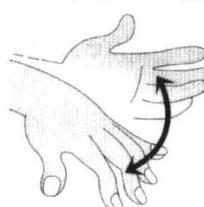
수공구 및 의자 작업시 피로 예방 체조

■ 수작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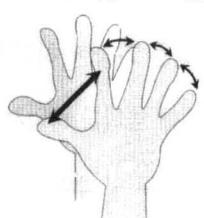
1. 신장(stretching)



2. 돌리기(rotate)



3. 흔들기(shaking)



- ① 손을 펴 손가락을 펼친 다음 5초 유지하는데 5회 반복한다.
- ② 팔꿈치를 고정한 채로 손바닥과 손등이 보이도록 5회 반복 실시한다.
- ③ 손을 위 아래로 흔든 다음 옆으로 흔들어준다.

■ 의자에서 작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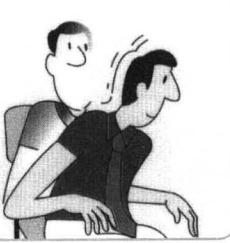
1. 팔 뻗치기(reaching)



2. 굴리기(rolling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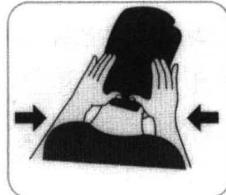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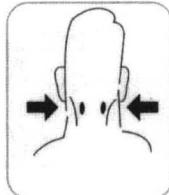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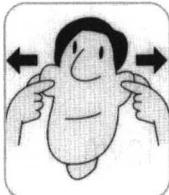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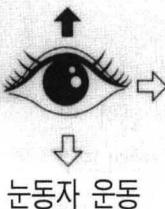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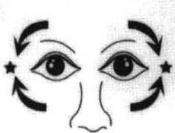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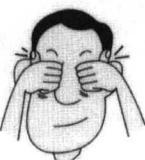
3. 전위운동(shifting)



- ① 양 팔을 머리위로 쭉 뻗는다. 5초동안 그대로 유지한다.
- ② 양 어깨로 크게 원을 그린다. 앞, 뒤를 반복하여 5회 실시한다.
- ③ 의자에 앉은 채로 좌우로 움직인다. 상체를 굽히고, 늘어진 자세로 팔을 흔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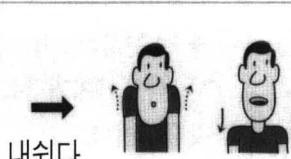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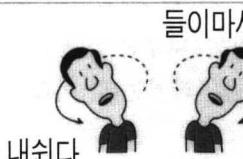
2

눈 피로예방 체조



3

목, 어깨, 손 긴장풀기 체조



목안마

손목털기

손 주무르기
손가락 주므로기

